

知 · 德 · 體를 갖춘 왕후

정순 왕후, 바로 조선 중기 태평성대의 서문을 연 영조 대왕의 왕비이며, 아울러 그로 인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인물이다.

충남 서산군지에 이 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화를 더하여서 왕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정순왕후는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에서 1745년 영조 21년에 탄생하였다. 아버지 이름은 김한구라 하였고 나중에 왕후가 된 따님 덕분에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이 되었다.

“아니 저 짐쫌 보아, 갑자기 서기가 지붕 위에 가득하네 그려. 곧 아기를 낳는다더니 천하 인물감인 아들이 나왔나?”

“서기뿐이 아니라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새 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려와서 날아다니고 지저귀고 있지

않는가?”

“그래. 서기며 새들이며 예삿일이 아니야. 자 가보자고 아들을 낳았는가, 딸을 낳았는가?”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가까이 가보니까, 딸을 낳았다는 숫 검댕이 걸린 금줄을 금방 쳐두지 아니하였는가?

“허 참, 딸이라면 저 상서로움이 합당하지 아니한걸.”

“혹시 알아? 대감님 마나님이 되실지, 왕후마마가 되실지. 하하하하.” 이러한 동네 사람의 말이 15년 후에 적중될 줄을 당시 누가 알았겠는가?

당시 아버지 김한구는 서울에 올라와서 세도가인 홍봉한(洪鳳漢)의 사저(개인집)에서 대서(代書)도 하고 문서도 정리하면서 벼슬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봉한은 유명한 한중록의 작자인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이며 바로 뒤주대왕인 사도세자의 장인이 되시는 분이요, 임금님과 사돈이 되는 당시 판서어른이었다. 정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였다. 이런 분 아래에서 문서일을 보고 있는 김한구의 소원은 당연히 벼슬얻기였다. 시골에 어린 딸 아이를 두고 객지에서 꿈을 키우며 고생을 하고 있는 김한구. 이러한 남편을 두고 서산땅에서 고생을 하는 아내와 갓난 딸 하나, 이것이 이집의 묘사가 되리라.

“한구, 너는 참 문장이 뛰어나구나. 원래 사람이 성실하다고 보았더니 하는 일도 잘하고 문장이 뛰어나구나. 그런데 객지에서 이리 고생을 하다니, 아깝구나. 자, 벼슬은 차차 알아보더라도 가족은 합술(合率)해야지. 내가 가족을 돌보아줄 테니까 이번에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상경하게나.”

이런 바람에 김한구는 기뻐하면서 고향땅, 처자가 있는 서산으로 내려갔다. 세간살이를 처분하고 꿈을 갖고 온가족이 상경을 한다마는 본디 가난한 사람이라 그때가 마침 선달한 겨울이었는데, 어린 것이 춥고 배가 고파서 심히 울었다.

“어허 이런 이런, 이 추위에

우리 딸이 고생하누나. 그런데 내 형편이 변변치 못하여 너 하나 덩게 못해주니 참 미안하구나. 자 어서 서울로 가자.”

고향을 떠나 당진 한진나루터에 다다랐다. 배를 기다리는데 어찌나 바닷바람이 추운지 몰랐다. 마침 김한구네가 타려고 기다리던 배가 왔기에 타러할 적에 배에서 내린 어떤 사람이 “어허 참 딱하외다. 어른이야 이 추위를 참을만 하지만 어린 것이야 어찌

견디리요? 나는 이제 다 왔으니 옷을 벗어주리다. 아가, 이게 변변치 않지만 명색이 가죽옷이란다. 떨지 말고 어서 서울로 가거라. 착하지 아가.”

이러면서 입고 있던 가죽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서울에서 주서(主書)벼슬을 살다가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사관(李思觀)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사관이 보니까 김한구가 비록 초라한 가장이지만 인물이 웅하며

당당한 것이 사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아기가 기한(飢寒)에 우니까 불쌍한 마음에서 옷을 벗어서 준 것이다. 실로 고마운 일이 아닌가? 자기도 추울 것인데...

서울생활 13년. 김한구는 남산골 샌님이 되어서 흥봉한의 서기노릇을 계속하였다. 이 사이에 이 딸은 무병무탈로 잘 자랐을 뿐 아니라 무척 영리하여서 춘추좌씨전을 다 소화하고 있었다. 이 책은 여간 어려운 책이 아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이미 문장이 자격을 나이 13살에 이룩한 셈이었다. 딸을 낳으려면 이 정도는 낳아야겠구나.

1747년, 영조 33년에 그만 왕후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서거하였다. 중전 자리가 빈 것이다. 그렇다고 바로 왕이 새 왕후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서 3년간이나 중전없이 영조는 쓸쓸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계비(繼妃)를 책봉할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중대한 일을 흥봉한이 맡게 되었다.

“자, 어느 집안에서 중전을 모셔와야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권세도 달라지는구나. 제발 내가 잘 아는 집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이 일이 정말로 어렵구나. 자 머리가 아프니 좀 집안을 산책이나 하자꾸나.”

이러면서 집안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서기 김한구가 있는 집근처를 가니까 바깥까지 들리도록 크 소리가 오가는 것이었다.

“이 친구야. 자네는 엉터리



점장이야. 뭐 나보고 벼슬이
경충 똬다고 하며 술값을 내라고
하더니만 이제 선달이 다
되었는데 무슨 벼슬길이 올라?
9 품이 1 품이 되기는 도저히
바라지 못할망정 8 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 사람아, 내 점을 그리
무시하지 말라고. 비록 술은
한잔 얻어먹었지만 나중에
보라고. 한잔이 뭐가. 매일같이
나한테 절을 할 것이네.”

“올해 출세한다고 하더니 지금
선달하고도 그름이 아닌가? 다
갔네, 올해가 다 갔어.”

“이 사람이 조금하기는,
그름날이라도 아직 자정이
남았네. 최후의 일각까지
기다리는 것이야. 마지막에
작파(作罷)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직 시간이 몇 시간 남았으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게나.
기다려보자고. 하하하하, 자 술
한잔 또 하세나.”

이러는 것이었다. 흥봉한은
듣고서 피식 웃었다.

김한구나 그 점장이 친구나 다
영터리군. 그러나 우정은 참
보기 좋구나. 오늘 하루가 다
가고, 한 해가 다 갔는데 제가
무슨 수로 경충 뛰어 1품이
된다고. 일품이라면 정승이나
부원군인데, 감히 될법이나 한
일인가?

‘아, 그렇구나. 그렇지...’
흥봉한은 ‘아차, 여기에 중전감이
있었구나’하고
환호작약(歡呼雀躍)하였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김한구에게 딸이 있지 않던가?
그 영리하며 덕성스러우며
예의바르며 효성스러운 딸이



있지 아니하던가?

그렇다. 이 처자다.
김한구가 부원군이 된다면 바로
일품벼슬이다. 그렇다면 나도 이
권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김한구를 십여년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어찌 나를 모른척 할
것인가?

이리하여서 비밀리에 일이
추진이 되었다. 김한구는 물론
한구 아내도 좋다고 하고 처자는
말이 없었다. 물론 기뻐한
것이다.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한편
간택령(揀擇令)이라 하여서
왕비선발 법령을 내리고 수십명
규수가 왕비감으로 궁중에
들어오게 되고 간택이 진행이
되었다. 여기에 김한구 딸이
들어 있음은 물론이었다.

“자 방석에 앉으시오. 아버지
이름이 방석 위에 쓰여 있으니.
그래야 가문을 알 수
있나이다.”

궁중 여관(女官)이 이렇게
말하자 여러 규수가 시킨 대로
앉았는데 유독 김한구 딸만 앉지

아니하고 맨바닥에
앉았다.

“어서 아버지 함자가 든
방석에 앉으시오.”

“못 앉겠습니다. 어찌 그
존엄하신 아버지 이름을 딸
자식이 되어서 감히 깔고
앉으리까? 다른 방석을 내
주시면 앉겠나이다.”

이런 효성은 지금도 그 얼마나
칭찬할만한가? 누가 시켜서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인가?
자식이 된 사람은 부디 부모님
이름을 더럽히거나 깔고 앉는
짓을 하지 말지니라. 요즘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많더라니 말이다.

영조대왕이 물었다.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인가?” 다른 처자는 장미,
부용, 모란, 국화 등을
말하였지만 이 처자는,
“목화(木花)입니다. 따뜻하게
하며 생업을 만들어 주며 깨끗한
흰 색입니다.”

“어허 맞구나. 무슨 고개가
넘기 힘이 드는고?”

다른 처자는 대관령고개, 한계령고개 여원치고개(전북남원) 공덕고개(경기도 포천)등을 말하였으나, “보릿고개인 줄 압니다. 맥령(麥嶺)은 수많은 배고픈 사람이 길고 긴 세월을 넘어야 하나이다.”

이러지 아니한가? 장한지고, 이 처자여! 슬기로운지고, 이 규수여! 멋진지고, 김한구 딸이여! 농사천하지대본이요, 국모의 지덕체(知德體)를 다 갖추어, 영조대왕의 복이로다. 나라의 흥복(洪福)이로다.

지와 덕은 제시가 되었는데 체(體)는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기에 말하겠다. 음식상이 나왔을 때 다른 규수들은 먹고 싶어도 젓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김규수는 단정히 앉아서 천연스럽게 맛있게 권하는 대로 먹을 것을 다 먹었다.

“아 음식 맛이 좋구나. 이 훌륭한 솜씨를 어찌 맛보지 아니하라?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은 고맙게 알며 잘 먹어야 할지니, 무릇 건강함을 도모함이며 주어진 분의 성의를 받아들임이며 농사짓는 분네의 노고를 수용함이니라. 예의범절은 바로 음식을 드는 것에서 나타나니라.”

이렇게 본인은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주저없이 수저를 들었다는 기록에서 나는 이렇게 추측하여 말하는 것이다. 목화와 맥령(麥嶺)에 대하여서는 규수의 풀이가 있기에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만하면 지덕체를 갖춘 왕비감이라 할

만하구나.

일차 5명 간택에 이어 이차간택 3명 중에 들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중전에 당당하게 뽑힌 것이다. 그때 나이 15살, 1759년(영조 35년) 6월에 대례식을 올렸다.

정순왕후의 일화가 참으로 많고 그 업적이 뛰어난 바가 많은데 그중 한 가지만 더하겠다.

왕후는 기민(飢民), 곧 흉년에 굶주린 사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었다. 궁중 경비를 절약하였고 자기 폐물을 내놓고 음식상을 간단히 하면서 그 남은 경비로 기민하였던 것이다. 오품이상 벼슬사는 부인들을 궁중에 불러서 세끼음식을 한끼 줄여 두끼만 먹도록 해 호남지방에 양식을 보냈다. 물론 왕비부터가 두끼 수라를 든 것이다.

“허허 궁전이 참 사랑이 많구려. 결국 내가 정치를 잘하였다는 칭찬을 만들어주는구려. 나이가 아버지요, 할아버지와 같이 많은 나 임금이라도 어린 중전을 앞에 두니 머리가 숙여지는구려. 오늘도 좋은 정사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여 봅시다.”

이렇게까지 기뻐하였던 것이다. 이런 마당에 조심스럽게 왕후가 이런 말을 하였다.

“저에게 은인이 한 분 있습니다. 20년전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에 저 한진나루터에서 제대로 입지 못한 갓난 제가 울고 보챤 때 가죽옷을 벗어준 이사관이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은혜를 감히 말하지 못하와 이리 몇년을 참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허허, 이사관이라. 훌륭한군. 그때 중전이 이리 될 줄 알았거나 하겠소? 오직 자비심 하나 뿐이었을 것인데, 이십년만에 중전의 보답을 받는구려. 당장 불러 오겠소.”

이사관은 서울에 올라와서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고 나중에 좌의정까지 되었다.

누가 사랑이 허무하다고 하던가? 누가 남에게 좋은 일 하면 보답이 없다고 하던가? 누가 어린 아이를 경시하라고 하였던가? 누가 인간사 허무함이 가득하다고 하던가?

왕후는 영조대왕 사후에도, 정조대왕 사후에도 사시고 순조대왕을 뒷받침하여 정치도 하고 수많은 저술도 하며 구휼사업도 하는 등 가진 애를 쓰시다가 1805년 순조 5년에 정월 61 세로 서거하였다.

오늘날, 국모(國母)가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 한 가닥 길과 빛을 보여주는 멋진 왕후라 할 것이다. 그이름은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



최래옥 <한양대 사법대학장>